

일시적 시력저하 (Transient Visual Loss)

갑자기 한 눈 또는 두 눈의 시력이 소실된 후 회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형적으로 “커튼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시야가 가려진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시야 전체가 안보이기도 하며, 흐릿하고 희미하게 보이거나, 번져 보이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수 초에서 수 분, 수 시간까지 지속될 수도 있고 원인 질환에 따라 다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1) 원인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혈전(Blood clot)에 의해 눈이나 뇌로 가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혀 생기는 증상인 경우 뇌경색의 전조증상일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원인이 혈전이 아닌 경우에도 시력저하가 영구적으로 남는 등 위험한 질환일 수 있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1) 한 눈의 시력저하

동맥이나 심장의 혈전, 혈관염, 혈관기형, 눈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경련, 시신경 유두 부종, 폐쇄각 녹내장, 건성안

(2) 두 눈의 시력저하

편두통 전조증상, 시력을 관장하는 대뇌(후두엽)에 일시적 혈액공급 제한이 있는 경우 (일과성 허혈발작) 또는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 뇌압상승에 의한 시신경 유두 부종, 실신, 급격한 혈당변화

2) 진단 및 치료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진술입니다. 복용하는 약이나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유무, 이전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편두통, 이전 진단받은 안과질환 병력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력소실이 한 눈/두 눈에 발생하였는지, 지속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흐려지거나 뿌옇거나, 어둡게 가려진 것인지 또는 번쩍거리는 불빛이나 깜박임등이 동반되었는지, 시력소실이 발생하였을 때 두통 등 다른 증상은 함께 없었는지, 증상을 유발하거나 호전시키는 요소가 있는지 등에 대해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진술에 따라 위에 언급한 질환 중 가능성이 높은 것을 염두에 두고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자기공명혈관촬영(MRA),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심전도(EKG), 심초음파, 혈액검사(전혈측정, 전해질검사, 신기능 검사, 공복혈당 및 지질, ESR, CRP, 응고장애검사, 동맥혈전증, 혈전성향증 검사) 등의 전신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눈 속 혈관이 막히

거나 망막의 경색이 없는지, 시력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안과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 혈전이 원인이라면 뇌경색을 막기 위한 약제를 처방하기도 하고, 혈전이 크고 즉시 제거가 필요한 경우 수술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혈관의 수축이 원인인 경우 칼슘길항제를 처방하기도 하며, 원인이 눈에 있는 경우 이를 호전시키기 위한 안약제제를 처방합니다. 많은 경우 시력소실은 정상으로 회복되나 원인에 따라 시력소실이 지속되거나 재발될 수 있습니다.

도움글 주신 분: 순천향대 안과 김현아 교수